ZERO TO ONE · 국어문법

음운론

0에서 1까지, 순서대로 쌓는 국어문법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문법 공부는 건물 짓는 일과 같습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비와 인테리어를 합니다.

벽돌 하나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옆의 벽돌과 맞물려야 벽이 됩니다.

음운은 형태소와, 형태소는 문장과 맞닿아 있고,
어간은 어근과, 어미는 접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것부터 쌓아갑니다.

그렇게 전체를 열 바퀴 돌고 나면,
비워둔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융선생

제 1 권
2026년

이 책을 펴기 전에

이 책은 구매하신 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

- 구매하신 **본인의 학습**에 쓰는 것
- 본인이 보기 위해 **인쇄**하는 것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해 쓰는 것

금지되는 것

-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공유**하는 것 (메신저·메일·클라우드 링크 포함)
- 블로그·카페·자료실·SNS 등 **온라인에 올리는 것**
- **단체·학원·학교에서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
- 내용을 **재편집·재판매**하거나 다른 교재에 옮겨 싣는 것
- 이미지로 촬영·캡처하여 배포하는 것

>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오래 붙들고 만든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알려주시되 파일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것이 다음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 2026 **융선생** · youtube.com/@yungsense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만든 이유

하나 · 효율

방학마다 문법 특강이 열립니다. 여덟 번을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체언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면 붙잡을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둘 · 순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운 다음이 곧바로 품사입니다. 형태소를 모르는 채로 어간과 어근을 가르라는 셈입니다.

셋 · 부담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들어갑니다.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까지 한꺼번에 넣으니 이해가 아니라 소화불량이 됩니다. 불규칙 활용을 첫 달에 만나면 대개 거기서 놓습니다.

넷 · 범위

학교는 전 범위를 하지 않습니다. 1학기에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 2학기에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 단어와 문장은 비어 있는 채로 학년이 올라갑니다.

전 범위가 한꺼번에 필요해지는 때는 고2입니다. 비워둔 자리가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권을 따로 뗐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권만 보셔도 막히지 않게 썼습니다.

쓰면서 참고한 것

학력평가와 수능의 문법 기출, 지문형 문항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별 교사용 교과서와 자습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거듭 나오는 것일수록 본질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 것을 앞쪽에 두었습니다.

문제 연습은 기출문제집으로 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권합니다. 이 책의 확인문제는 단계마다 대여섯 개뿐입니다. 방금 배운 것을 알고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장치이지 연습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단원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열 바퀴 돌면서 한 겹씩 올립니다.**

구간		하는 일
0 ~ 0.2	땅 파기	바닥을 깊게 팝니다
0.3 ~ 0.6	기둥 세우기	뼈대를 올립니다
0.7 ~ 0.9	방 만들기	벽을 치고 나눕니다
1	인테리어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각 단계 머리에 몇 바퀴째이고 어느 구간인지 적어뒀습니다.

이 책이 문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원칙

1. 문법은 온통 기준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것도 기준입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누는 것도,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누는 것도 전부 기준이에요.

기준은 자격을 줍니다.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아버지인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져요.

'꽃' 하나를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름
무엇을 나타내는가 (**의미**)	**명사**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능**)	**체언**
모양이 변하는가 (**형태**)	**불변어**
문장 속 자리는 어디인가 (**성분**)	**주어**

넷 다 맞습니다. 하나의 단어에 이름이 네 개 붙은 거예요.

>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먹-'은 실질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에 "혼자 못 쓰니까 아닙니다"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혼자 쓸 수 있느냐는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밤과 군소리, 묻어와 물어, 그림을 그림 — 이 책에는 이런 짝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 습관**이 문법 공부의 절반입니다.

2. 정의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 **읽고** [일꼬]
> **닭고기** [닥꼬기]

같은 받침 ㄺ인데 발음이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겹받침 ㄺ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읽고'는 **용언의 어간 '읽-'**에 **어미 '-고'**가 붙은 말입니다. '다만' 조항에 정확히 걸려요. 그래서 **[일꼬]**.

'닭고기'의 '닭'은 명사고, '고기'는 어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닥꼬기]**.

예외를 외운 게 아니라 예외의 조건을 읽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두 마디를 흘려보내면, 두 발음이 왜 다른지는 영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뜻부터 풉니다. **어간**(語幹)의 幹은 줄기, **어미**(語尾)의 尾는 꼬리예요. 줄기는 그대로 있고 꼬리는 움직입니다. 이걸 알면 '변하지 않는 부분·변하는 부분'을 따로 외울 일이 없습니다.

3. 예시가 실력입니다

문법은 규칙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시를 많이 본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 한 줄은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시를 수십 개 본 학생은 **처음 보는 단어도 같은 원리로 잘라냅니다.**

그중에서도 **짝을 이루는 예시**가 핵심입니다. 하나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여요.

짝	무엇이 갈랐나
읽고 [일꼬] ↔ **닭고기** [닥꼬기]	뒤가 어미냐 아니냐
숟가락 ↔ **젓가락**	ㄹ이 ㄷ으로 변한 말이냐, 사이시옷이냐
돋보기 ↔ **돗자리**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느냐
군밤 ↔ **군소리**	구운 밤이냐, 쓸데없는 말이냐
땅에 묻어 ↔ **길을 물어**	규칙이냐 ㄷ 불규칙이냐
그림을 **그림**	명사냐 명사형이냐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만 다르게 — 이 책이 예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훑지 말고 소리 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시리즈 전체 지도

권	제목	이 책이 답하는 질문
1	음운론	왜 **쓴 대로 읽지 않을까**
2	형태론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3	품사론	이 말은 **무엇일까**
4	문장론	이 말들이 **어떻게 문장이 될까**
5	중세국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6	규범론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할까**
7	담화론	문장은 맞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각 권은 따로 사서 봐도 완결됩니다. 필요한 개념은 그 권 안에서 다시 세워요. 다만 순서대로 보시면 앞 권에서 비워둔 자리가 뒷 권에서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권에 대하여 — 음운론

이 책이 답하는 질문

왜 쓴 대로 읽지 않을까

'국밥'이라고 쓰고 [국빱]이라고 읽습니다. '좋아'라고 쓰고 [조아]라고 읽어요. '신라'는 [실라]고 '굳이'는 [구지]입니다.

음운 공부의 대부분은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답입니다. 쓴 대로 읽는다면 배울 게 없어요. 앞으로 나올 모든 규칙이 "왜 달라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책만의 성격 — 소리 내야 아는 공부

음운은 **소리**에 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눈으로만 읽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 책에는 실험이 자주 나옵니다. 코를 손가락으로 막고 '엄마'를 소리 내보라거나, 거울을 보며 'ㅏ'와 'ㅑ'를 발음해보라거나, 'ㅁ·ㄴ·ㅈ·ㄱ·ㅎ'을 순서대로 소리 내며 막히는 자리가 뒤로 밀려나는 걸 느껴보라거나.

손가락 한 번이 설명 백 마디보다 낫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읽으세요.

어디에 힘을 주었을까요

이 책은 크게 두 덩이입니다.

구간	무엇	분량
0 ~ 0.3	음운의 **재료** — 자음과 모음의 체계	약 1/3
0.4 ~ 1	음운의 **변동** — 소리가 왜, 어떻게 바뀌는가	약 2/3

음운 변동에 2/3를 썼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비는 어디인가

0.2 자음 체계입니다. 이 책에서 별 다섯 개가 처음 붙는 자리예요.

앞으로 배울 자음 변동은 전부 **"조음 위치가 같아진다"** 아니면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로 설명됩니다. 비음화도, 유음화도, 구개음화도, 거센소리되기도 예외 없이요.

0.2가 흔들리면 0.5부터 전부 암기가 됩니다. 0.2가 잡히면 0.5부터 전부 이해가 돼요. 여기서만큼은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이 책의 열쇠 단계

0.7 어간과 어미입니다. 새로운 음운 변동이 하나도 안 나오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없으면 0.8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된소리되기 2번 조항이 "어간 받침 ㄴ 뒤에서"로 시작하거든요. 어간을 모르면 문장 자체가 안 읽힙니다.

0.5와 0.6에서 비워둔 자리를, 0.7이라는 열쇠로 0.8에서 한꺼번에 엽니다.

다음 권과의 관계

0.7에서 배우는 **어간·어미**와 **형태소** 개념은 2권 형태·단어 편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맛만 본 것을 거기서 본격적으로 다뤄요.

그리고 0.9의 **ㅡ 탈락·ㄹ 탈락**은 3권에서 "규칙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납니다.

0 음운이란 무엇인가

START 땅 파기

무엇을 지을지 도면부터 펼칩니다.

🎥 **강의 0**

① 음운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한국어에는 소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같은 사람도 아플 때와 안 아플 때가 다르죠.

그 많은 소리 중에서 **뜻을 바꾸는 소리만** 골라낸 것.
그게 음운입니다.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정의는 딱딱한데, 예를 보면 금방이에요.

자음이 뜻을 구별합니다
말 · 발 · 팔
물 · 불 · 풀

모음도 뜻을 구별합니다
발 · 볼 · 불
산 · 손 · 신

'말'과 '발'은 딱 하나가 다릅니다.
ㅁ이냐 ㅂ이냐.

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됐어요.
이렇게 **바꿔치기했을 때 뜻이 달라지면**, 그 둘은 서로 다른 음운이고요.

이 짝에 이름이 있습니다 — 최소대립쌍

방금처럼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은 단어의 짝**을 최소대립쌍이라고 부릅니다.

'말 · 발'은 자리도 같고 개수도 같은데 첫소리만 다르죠.
더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차이라서 '최소'고요.

짝	다른 자리	갈라낸 음운
물 — 불	첫소리	ㅁ / ㅂ
발 — 볼	가운뎃소리	ㅏ / ㅗ
밥 — 밤	끝소리	ㅂ / ㅁ
눈 — 눈:	길이	짧게 / 길게

이게 음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궁금하면, 그 소리만 바꾼 짝을 만들어보면 되거든요. 뜻이 달라지면 음운이고요.

직접 해보세요.
'감'에서 한 글자만 바꿔 다른 단어를 세 개쯤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밤·곰·강·간… 얼마든지 나오죠.
그렇게 나온 짝 하나하나가 최소대립쌍입니다.

> 💡 마지막 줄의 **눈 — 눈:**을 눈여겨보세요.
> 자음도 모음도 똑같은데 길이만 다릅니다. **길이도 음운이라는 증거**예요. → **0.1**

★ 소리는 다른데 뜻은 안 갈리는 경우 — 변이음

앞에서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럼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소리 차이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고기'를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천천히, 두 번.

> **고기**

첫 번째 ㄱ과 두 번째 ㄱ, **같은 소리로 들리시나요?**

실제로는 다릅니다.
첫 ㄱ은 목이 안 떨리는데, 두 번째 ㄱ은 목이 떨려요.

목에 손을 대고 다시 해보세요.
두 번째에서 진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그냥 'ㄱ'이라고 생각하죠.

그 차이로는 단어의 뜻이 안 갈리니까요. '고기'를 어느 쪽으로 발음하든 뜻은 같습니다.

뜻을 못 가르는 소리 차이는 '다른 음운'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다른 소리지만 한 음운으로 묶이는 것**을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무엇	예
음성	입에서 실제로 나온 **물리적인 소리**	고기의 첫 ㄱ과 둘째 ㄱ은 **다른 소리**
음운	우리 머릿속에서 **같다고 인식하는 소리**	둘 다 **하나의 ㄱ**
변이음	한 음운에 속하는 서로 다른 음성	ㄱ · ㄷ · ㅂ · ㄹ 등에서 나타남

그래서 음운은 소리가 아니라 약속에 가깝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이 정도 차이는 같은 걸로 치자"고 합의한 단위예요.

> 💡 **언어마다 합의가 다릅니다.**
> 영어에서 **light와 right**는 완전히 다른 단어죠. 우리에게는 둘 다 그냥 ㄹ입니다.
> 반대로 우리는 **불 · 뿔 · 풀**을 확실히 구별하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셋이 잘 안 갈립니다.
> **소리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어디까지를 같은 소리로 볼지가 다른 것**입니다.

목이 떨리는 ㄱ이 나오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앞뒤가 모두 울리는 소리(모음이나 ㄴㅁㅇㄹ)일 때고요.

> **감기 · 번개 · 당당 · 알밥**

이걸 **유성음화**(울림소리되기)라고 부릅니다.

음운이 바뀐 게 아니라 **같은 음운이 자리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것**이라, 뒤에 배울 음운 변동에는 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책이 계속 물고 늘어질 한 가지

발음과 표기는 다릅니다.

'국밥'이라고 쓰고 [국빱]이라고 읽습니다.

'좋아'라고 쓰고 [조아]라고 읽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음운 공부는 결국 **"왜 쓴 대로 읽지 않는가"**에 답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규칙이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이거든요.

쓴 대로 읽는다면, 배울 게 없습니다.

확인문제 0

1. '말 / 발 / 팔'의 뜻이 서로 다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2. '산 / 손 / 신'에서 뜻을 가른 것은 자음인가요 모음인가요?

3. 최소대립쌍이 무엇인지 쓰고, '감'으로 최소대립쌍을 두 개 만드세요.

4. '고기'의 두 'ㄱ'은 실제로 다른 소리인데 왜 같은 음운으로 볼까요?

5. 음성과 음운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6. '국밥'을 [국빱]으로 읽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무엇을 설명하려는 걸까요?

START CLEAR

음운이란 무엇인가

다음	01 · 음운의 종류
남은 것	10 / 10

0.1 음운의 종류

CHAPTER 01 / 10 — 땅 파기

쓸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미뤄둠 여기서 1가지를 비워둡니다 — 05에서 채웁니다

강의 0.1

① 음운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0단계에서는 음운을 자음과 모음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아닌 것도 뜻을 구별할 수 있어요.**

길게 끄느냐.
어디서 끊느냐.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래서 음운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로요.

음소 · 운소

	다른 이름	무엇
음소	분절 음운	자음, 모음
운소	비분절 음운	장단(길이) · 휴지(띄어쓰기) · 고저(억양)

분절(分節)에서 節은 **마디**입니다.
대나무 마디처럼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밥'에서 ㅂ·ㅏ·ㅂ은 하나씩 떼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리의 길이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소리에 얹혀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비**분절입니다.

운소도 뜻을 구별합니다

0단계에서 음운을 **"뜻을 구별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럼 길이나 억양도 뜻을 구별할까요.

합니다.

짧게	길게
눈[目] 사람 얼굴의 눈	**눈**:[雪]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馬] 타고 다니는 말	**말**:[言] 입으로 하는 말
밤[夜] 어두운 밤	**밤**:[栗] 먹는 밤

자음도 모음도 똑같은데 뜻이 다르죠.
길이 하나가 뜻을 갈랐어요.

그래서 길이도 음운입니다.

> 표시 방법을 알아두세요. 긴소리는 모음 뒤에 :를 찍습니다. [눈:] [말:]
> 이 기호가 **0.8에서 다시 나옵니다.**

휴지(끊어 읽기)와 고저(억양)도 마찬가지고요.

휴지 — 어디서 끊느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들어가심	아버지가 가방 속으로 들어가심

고저 —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평서문 — 먹었다고 알려줌	의문문 — 먹었냐고 물어봄

글자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끊는 자리와 억양만 달라졌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다른가

	개수	공기 흐름 장애	혼자 쓸 수 있나
자음	19개	있음	×
모음	21개	없음	✓

직접 해보세요.

'우유'를 소리 내보세요.
ㅜ와 ㅠ만으로 발음이 됩니다. 입안 어디도 막히지 않죠.
→ **모음은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어'를 ㄱ과 ㄱ만으로 소리 내보세요.
안 됩니다. 자음은 반드시 모음에 기대야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ㄱ을 발음할 때 혀뿌리가 입천장을 막습니다.
→ **자음은 장애가 있고, 혼자 못 씁니다.**

> **국어 ≠ ㄱㄱ / 우유 = ㅜㅠ**

★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 초성 'ㅇ'

방금 '우유'가 ㅜ와 ㅠ만으로 발음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유'에는 분명히 **ㅇ이 두 개** 쓰여 있습니다.

그럼 ㅇ은 뭘까요.

초성의 'ㅇ'은 소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냥 **자리를 채우는 표시**일 뿐입니다.

한글은 초성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ㅜ'만 덜렁 쓰면 글자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소리 없는 ㅇ을 앞에 세워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자리만 지키는 허수아비예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아'를 소리 내면 [ㅏ]가 납니다. ㅇ에 해당하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죠.

자음 19개에 들어 있는 'ㅇ'은 다른 것입니다.

그건 **받침의 ㅇ**입니다. '강', '방', '동'의 그 ㅇ이요. 이건 소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코로 나가는 비음이에요.

	예	소리
초성 ㅇ	**아** · **우**유 · **이**	없음 (자리 표시)
받침 ㅇ	강 · 방 · 동	있음 (비음)

글자는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자음 19개에 들어가는 건 받침 ㅇ 하나뿐이에요.

> 💡 0.2에서 코를 막고 실험해보면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기준도 다릅니다

자음 →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어디서 막느냐, 어떻게 막느냐)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입 모양이 변하느냐)

자음은 막는 게 본질이니 **어디를 어떻게 막는지**로 나누고, 모음은 안 막으니 그 기준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 입 모양으로 나누고요. 분류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물건이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운의 윗집 — 음절

음운은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럼 그 위는 뭘까요? **음절**입니다.

음절(音節)의 節도 **마디**입니다. **한 번에 소리 내는 덩어리**, 쉽게 말해 **글자 한 칸**이에요.

'국밥'은 음운으로는 ㄱ·ㅜ·ㄱ·ㅂ·ㅏ·ㅂ **여섯 개**지만, 음절로는 '국'과 '밥' **두 개**입니다.

	자리	무엇이 오나	몇 개까지
초성	첫소리	자음	**1개**
중성	가운뎃소리	모음	**1개** (필수)
종성	끝소리	자음	**1개**

★ 이 표가 이 책 전체를 지배합니다

위 표의 오른쪽 칸을 다시 보세요. **전부 '1개'입니다.** 이걸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한 자리에 자음 하나까지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음이 없으면 음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와닿으니 직접 해보세요.

'값'을 [갑ㅅ]처럼 ㅅ까지 다 소리 내보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갑]까지밖에 안 나와요. 받침 자리에 자음을 둘 넣을 수가 없거든요.

'strike'를 한국어로 적어보세요. '스트라이크' — 다섯 글자가 됩니다. 영어는 [str-]처럼 초성에 자음을 셋 몰아넣지만, 한국어는 하나씩밖에 못 넣으니 모음을 빌려 와 칸을 늘리는 거예요.

한국어의 받침 규칙들은 전부 이 제약에서 나옵니다.

- 겹받침을 하나로 줄이는 것 → **자리가 하나뿐**이라서
- 받침에서 나는 소리가 일곱 개뿐인 것 → **끝소리 자리의 제약**

이게 0.5와 0.6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규칙을 외우게 될 텐데, 외울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예고된 결과**예요.

> 💡 **글자와 소리는 다릅니다.**
> '값'은 **쓸 때는** 받침이 둘이지만 **소리 낼 때는** 하나입니다.
> 음절 구조 제약은 **소리에 걸리는 제약**이지 글자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 글자와 소리는 개수부터 다릅니다

이 책은 계속 "글자와 소리는 다르다"고 말할 겁니다.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고 갑니다.

	몇 개
한글 자모 (글자)	**24자** — 자음자 14 + 모음자 10
음운 (소리)	**40개** — 자음 19 + 모음 21

글자보다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24자로 40개를 적어야 하니 **모자란 만큼 겹쳐 씁니다.**

> ㄲ · ㄸ · ㅃ · ㅆ · ㅉ — 같은 글자를 나란히
> ㅐ · ㅖ · ㅚ · ㅘ · ㅝ — 다른 글자를 나란히

★ 글자 하나가 소리 하나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글자	소리	음운 몇 개
ㅏ	[a]	**1개** (단모음)
ㅐ	[ɛ]	**1개** (단모음인데 글자는 둘을 겹침)
ㅛ	[jo]	**2개** (반모음 + 단모음)
ㅘ	[wa]	**2개** (반모음 + 단모음)
ㄲ	[k͈]	**1개** (글자는 둘, 소리는 하나)

'ㅐ'는 글자 두 개를 겹쳤는데 소리는 하나고, **'ㅛ'는 글자 하나인데 소리는 둘**입니다. **정반대예요.**

글자를 세지 말고 소리를 세세요.

음운 개수를 묻는 문제가 여기서 갈립니다. '왜'는 글자로는 두 칸이지만 음운은 ㅗ(반모음) + ㅐ, 그리고 초성 ㅇ은 소리가 없으니 **2개**입니다.

> 💡 **한글은 소리를 적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글자와 소리가 가깝긴 해요.
> 그런데 **가깝다는 것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틈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 음절은 네 모양뿐입니다

초성과 종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넷으로 정해져요.

	모양	예
①	모음	아 · 오 · 의
②	자음 + 모음	나 · 코 · 위
③	모음 + 자음	알 · 옷 · 임
④	자음 + 모음 + 자음	밥 · 산 · 꽃

다섯 번째는 없습니다. 자리가 셋뿐이고 그중 하나는 필수니까요.

★ 발음하면 음절 유형이 바뀌기도 합니다

글자로 볼 때와 소리 낼 때가 다릅니다.

> **꽃**[꼳] — 글자도 ④, 소리도 ④ (안 바뀜)
> **꽃이**[꼬치] — 글자로는 ④+① 인데 소리로는 **②+②** (받침이 넘어감)
> **값**[갑] — 글자로는 자음이 넷인데 소리는 **④** (ㅅ이 떨어짐)
> **좋아**[조아] — 글자로는 ④+① 인데 소리는 **②+①** (ㅎ이 사라짐)

연음이 일어나면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앞은 ④에서 ②로, 뒤는 ①에서 ②로 바뀌죠.

> 💡 **묻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발음했을 때 음절 유형이 바뀌는 것은?" —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세세요.
> 반드시 **먼저 발음을 적고** 그다음에 유형을 매기세요.

실제 규칙은 0.5부터

여기서는 "왜 그런 규칙이 생기는가"라는 **이유**만 가져갑니다.

어떤 자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0.5**, 겹받침 처리는 **0.6**입니다.

운소는 여기까지만

장단이 실제로 뜻을 구별한다는 것, 표시가 :라는 것까지만 잡으세요.

긴소리가 언제 짧아지는지 같은 세부 규칙은 뒤에서 다룹니다.

확인문제 0.1

1. 음소와 운소의 다른 이름을 각각 쓰세요.
2. 운소 세 가지를 쓰세요.
3. 자음은 몇 개, 모음은 몇 개인가요?
4. '국어'를 'ㄱㄱ'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는?
5.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세요.
6. '눈'을 두 가지 뜻으로 읽어보고, 긴소리 쪽에 :를 찍어 표시하세요.
7. **'우유'의 'ㅇ'은 무슨 소리인가요?**
8. '아'의 ㅇ과 '강'의 ㅇ은 어떻게 다른가요?
9. '국밥'은 음운 몇 개, 음절 몇 개인가요?
10. 음절을 이루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1. 초성과 종성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각각 최대 몇 개인가요?
12. '값'을 소리 낼 때 ㅅ이 나지 않는 이유를 음절 구조 제약으로 설명하세요.
    12-1. **한글 자모는 몇 자이고 음운은 몇 개인가요? 왜 다른지 설명하세요.**
    12-2. **'ㅐ'와 'ㅛ'는 글자 수와 소리 수의 관계가 정반대입니다. 각각 설명하세요.**
13. **음절 유형 네 가지를 쓰세요. 왜 다섯 번째는 없나요?**
14. **다음을 발음한 뒤 음절 유형이 바뀌는 것을 고르세요.** 꽃 · 꽃이 · 좋아 · 산

STAGE 01 CLEAR

음운의 종류

다음	**02 · 자음 체계**
남은 것	**9 / 10**

0.2 자음 체계

★★★★★

CHAPTER 02 / 10 — 땅 파기

기둥을 세웁니다. 이 뼈대 위에 앞으로 배울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미뤄둠 여기서 1가지를 비워둡니다 — 06에서 채웁니다

강의 0.2

① 자음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이 단계가 음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앞으로 배울 자음 변동은 전부 **"조음 위치가 같아진다"** 아니면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로 설명되거든요. 비음화도, 유음화도, 구개음화도 예외 없이요.

여기가 흔들리면 0.5부터 전부 암기가 됩니다.
여기가 잡히면 0.5부터 전부 이해가 되고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소리를 내면서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조음 위치 — 어디서 막는가

입술에서 목구멍 쪽으로, 순서대로 뒤로 갑니다.

순	이름	다른 이름	자음
❶	입술소리	양순음	ㅁ ㅂ ㅍ
❷	윗잇몸소리	치조음	ㄴ ㄷ ㄹ ㅅ
❸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ㅈ
❹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ㄱ ㅇ
❺	목청소리	후음	ㅎ

'ㅁ · ㄴ · ㅈ · ㄱ · ㅎ' 순서로 소리 내보세요.

막히는 지점이 입술에서 목구멍으로 한 칸씩 밀려납니다.

이름은 그 위치를 그대로 적은 것뿐이에요.

외울 게 아니라, 느낄 겁니다.

조음 방법 — 어떻게 막는가

이름	자음	암기	어떻게
파열음	ㄱ ㄷ ㅂ	**김덕배**	막았다가 터뜨림
마찰음	ㅅ ㅎ		좁은 틈으로 비벼서 냄
파찰음	ㅈ		터뜨리고 + 비빔 (둘 다)
비음	ㅇ ㄴ ㅁ	**오나미**	코로 내보냄
유음	ㄹ		혀 옆으로 흘려보냄

비음(鼻音)에서 鼻는 **코**입니다. 이름이 곧 설명이에요. 코로 나가는 소리입니다.

🔬 코 막고 실험 —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손가락으로 코를 꽉 막고, 아래를 순서대로 소리 내보세요. **반드시 직접 하셔야 합니다.**

① 코를 막고 "엄마"

→ 안 됩니다. 답답하게 막혀요. ㅁ이 **비음**이라 코로 나가야 하는데 길을 막았으니까요.

② 코를 막고 "아빠"

→ 됩니다. 멀쩡해요. ㅂ은 비음이 아니라 입으로 나가는 소리거든요.

③ 코를 막고 "코카콜라"

→ 완벽하게 됩니다. 평소랑 똑같아요.

'코카콜라'에는 **비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ㅋ·ㅋ·ㅋ·ㄹ 전부 입으로 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를 막든 안 막든 아무 차이가 없죠.

④ 코를 막고 "강"

→ 안 됩니다. 받침 **ㅇ이 비음**이기 때문입니다.

⑤ 코를 막고 "아"

→ 됩니다. 0.1에서 말했죠. **초성 ㅇ은 소리가 없습니다.**

④와 ⑤를 나란히 해보세요.

글자는 똑같은 ㅇ인데 하나는 막히고 하나는 안 막힙니다.

초성 ㅇ과 받침 ㅇ이 전혀 다른 물건이라는 증거.
방금 몸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이 실험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0.5의 비음화가 통째로 이 감각 위에 세워지거든요.

소리의 세기

이름	다른 이름	자음
예사소리	평음	ㄱ ㄷ ㅂ ㅅ ㅈ
된소리	경음	ㄲ ㄸ ㅃ ㅆ ㅉ
거센소리	격음	ㅋ ㅌ ㅍ ㅊ

가로로 읽으면 세기가 다른 것들이고, **세로로 읽으면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들**입니다.

ㄱ · ㄲ · ㅋ은 전부 여린입천장 파열음이에요.
막는 자리도 방법도 같고, 힘만 다릅니다.

이 감각이 있으면 0.6의 거센소리되기(ㄱ + ㅎ → ㅋ)가 저절로 납득됩니다.
없던 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 소리가 세지는 것**뿐이거든요.

★ 정확히 말하면 '세기'가 아니라 '발성 유형'입니다

'세기'는 우리가 느끼는 인상이지 실제로 측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된소리**가 가장 세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거센소리**가 가장 세다고 느껴요.

사람마다 다르니, 객관적인 기준이 못 됩니다.

실제로 다른 것은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걸 **발성 유형**이라고 해요 —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지나는 단계**에서 갈리는 유형입니다.

	목 근육	공기의 양
예사소리	긴장시키지 **않음**	많이 안 내보냄
거센소리	—	성대 통로를 **넓게 열어 많이** 내보냄
된소리	**힘을 주었다가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게** 내보냄

직접 해보세요.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파'**와 **'빠'**를 소리 내면, **'파'에서 바람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세기가 아니라 **공기의 양**이 다른 겁니다.

> 💡 **이 책은 편의상 '세기'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자음 체계표를 읽을 때 그 편이 빠르거든요.
> 다만 **시험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물으면 '발성 유형이 다르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 표의 세로축 이름을 **'발성 유형'**으로 적어놓은 교과서도 있어요.

★ 여기서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이 걸립니다 — ㄲ은 몇 개인가

ㄲ · ㄸ · ㅃ · ㅆ · ㅉ는 각각 '하나'의 음운입니다.

ㄲ은 ㄱ + ㄱ이 **아닙니다.**
생김새 때문에 두 개처럼 보이는데, 소리로는 하나예요.

증거는 간단합니다.
'까'를 소리 내면서 ㄲ만 두 번에 나눠 발음해보세요.

안 됩니다.
ㄱ을 두 번 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나는 하나의 센 소리**거든요.

한글이 ㄱ을 두 번 겹쳐 쓴 건 **'ㄱ과 같은 자리에서 나는 더 센 소리'라는 걸 모양으로 보여주려던 것**이지, 개수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0.2의 세기 표에서 ㄱ·ㄲ·ㅋ이 한 줄에 있는 이유고요.

그럼 겹받침 ㄳ · ㄵ · ㅙ은요?

이건 **진짜로 두 개**입니다.
ㄳ은 ㄱ과 ㅅ,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겉모습	실제 음운 수	왜
ㄲ ㄸ ㅃ ㅆ ㅉ	같은 글자 두 개	**1개**	하나의 된소리
ㄳ ㄵ ㅙ ㄺ ㅄ	다른 글자 두 개	**2개**	서로 다른 자음 두 개

같은 글자가 겹치면 하나, 다른 글자가 겹치면 둘.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 ⏸ **이 차이가 0.6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 겹받침은 두 개라서 발음할 때 **하나가 떨어집니다.** (넋 → [넉])
> ㄲ은 하나라서 떨어질 게 없습니다. (밖 → [박], 떨어진 게 아니라 **바뀐** 것)
> 왜 하나는 탈락이고 하나는 교체인지는 **0.6**에서 만납니다.

▮▮ 표는 아직 반쪽입니다

위 표에는 각 칸의 대표 자음만 넣었습니다. 19개를 전부 넣은 완성표는 뒷 단계에서 채웁니다.

지금은 **위치 다섯 자리, 방법 다섯 가지, 세기 세 단계**라는 뼈대만 잡으세요.

확인문제 0.2

1. 조음 위치 다섯 가지를, 입 앞쪽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2. 'ㅂ'의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 소리 세기를 각각 쓰세요.

3. '김덕배'와 '오나미'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4. ㄱ · ㄲ · ㅋ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5. 코를 막으면 '엄마'는 안 되고 '아빠'는 되는 이유는?

6. 코를 막고 '코카콜라'를 발음해도 멀쩡한 이유는?

7. 코를 막으면 '강'은 안 되고 '아'는 됩니다. 왜일까요?

8. **'ㄲ'은 음운 몇 개인가요? 'ㄱ'은 몇 개인가요?** 그렇게 판단한 기준은?

9.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차이를 '세기'로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쓰고,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쓰세요.

STAGE 02 CLEAR

자음 체계

다음	**03 · 모음 체계**
남은 것	**8 / 10**

0.3 모음 체계

나머지 재료를 마저 확인합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자음은 어디를 막느냐로 나눴죠.
그런데 모음은 막지를 않으니 그 기준을 못 씁니다.

대신 **입 모양이 변하느냐**로 나눠요.

> **단모음** (10개) —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과 혀 위치가 **변하지 않음**
> **이중모음** (11개) —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과 혀 위치가 **변함**

거울을 보면서 'ㅏ'를 길게 소리 내보세요.
입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엔 'ㅑ'를 길게 해보세요.
입이 움직입니다.

그게 차이의 전부예요.

단모음 10개

	전설 · 평순	전설 · 원순	후설 · 평순	후설 ·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전설 / 후설** —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 **평순 / 원순** — 입술이 평평하냐 둥그냐

- **고 / 중 / 저** — 혀가 높으냐 낮으냐 (= 입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개구도)

'ㅣ → ㅔ → ㅐ'를 순서대로 소리 내보세요. 턱이 한 칸씩 내려갑니다. 그게 고 → 중 → 저예요.
'ㅡ'와 'ㅜ'를 번갈아 해보세요. 혀 위치는 같고 입술만 오므라듭니다. 그게 평순 → 원순이에요.

표를 외우려 하지 마세요.
소리 내보면, 표가 몸에 들어옵니다.

★ 세 기준을 기호로 적으면 — 변별적 자질

위의 세 기준을 [+]와 [−]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변별적 자질**이라고 해요.

모음	후설	고설	원순
ㅣ	−	+	−
ㅜ	+	+	+
ㅏ	+	−	−
ㅗ	+	−	+

하나의 자질은 두 부류로만 가릅니다. 후설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 **ㅜ와 ㅗ는 [고설] 하나만 다릅니다** — 나머지는 같죠
> **ㅜ와 ㅣ는 [후설]과 [원순] 둘이 다릅니다**

자질이 하나만 다른 두 소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 💡 **0단계의 최소대립쌍이 이것과 이어집니다.**
> 소리 하나로 뜻이 갈리는 짝이 최소대립쌍이었죠. 그 '소리 하나'를 더 쪼개면 **자질 몇 개가 다른가**로 잴 수 있습니다.

> 📌 **2권에서 같은 방식을 다시 만납니다.**
> 거기서는 **단어의 뜻**을 [+인간] [+여성]처럼 쪼개요. 이름도 비슷하게 **의미 자질**입니다.
> **소리를 쪼개든 뜻을 쪼개든 방법은 같습니다.** 가르는 기준을 하나씩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 **ㅟ와 ㅚ**
> **원칙** — 단모음 (입 모양 안 변함)
> **허용** — 이중모음 (입 모양 변해도 인정)
>
>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인정해요. 시험에는 **원칙이 단모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중모음과 반모음

> **이중모음 = 반모음 + 단모음**

반모음은 이름 그대로 **반쪽짜리 모음**입니다.
온전한 모음이 아니라, 스치듯 지나가는 소리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2%**라고 말합니다.
거의 없는데, 있긴 있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반모음을 온전한 모음으로 착각하면, 아래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됩니다.

착각	실제
ㅑ = ㅣ + ㅏ ?	**이아영 ≠ 야영**
ㅘ = ㅗ + ㅏ ?	**오아시스 ≠ 와시스**
ㅝ = ㅜ + ㅓ ?	**우엉 ≠ 웡**

소리 내보면 명백합니다.
'이아영'은 세 박자고, '야영'은 두 박자예요.

앞의 'ㅣ'가 온전한 모음이면 박자가 같아야 하는데 다르죠.
반모음은 음절을 하나 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쪽이에요.

> **반모음의 기호와 계산은 0.9에서**
> 반모음을 기호(ǐ)로 쓰고, 그걸로 '피었다 → 폈다'를 계산하는 건 0.9에서 합니다.
> 지금은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다"**만 잡으세요.

확인문제 0.3

1.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가르는 기준은?

2. 단모음은 몇 개, 이중모음은 몇 개인가요?

3. 'ㅡ'와 '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4. 'ㅟ'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인가요 이중모음인가요?

5. '이아영'과 '야영'의 발음이 다른 이유를 반모음으로 설명하세요.

6. 다음을 변별적 자질 [후설] [고설] [원순]로 적으세요. ㅣ · ㅜ · ㅏ · ㅗ

7. 'ㅜ'와 'ㅗ'는 자질이 몇 개 다른가요? 'ㅜ'와 'ㅣ'는요?

STAGE 03 CLEAR

모음 체계

다음	**04 · 음운 변동 총론**
남은 것	**7 / 10**

인출 ①

소리의 지도 — 첫 스케치

5분

책을 **덮고** 시작하세요. 음운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지를 뻗어 그리면 됩니다. 잘 못 그려도 괜찮아요. **떠올리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공부입니다.** 다 그린 뒤에만 아래 목록을 보세요.

> 힌트 — 가지는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음소와 운소, 각각의 다른 이름 **0.1**
- ☐ 운소 세 가지 **0.1**
- ☐ 자음 개수 · 모음 개수 **0.1**
- ☐ **초성 ㅇ과 받침 ㅇ의 차이** **0.1**
- ☐ 조음 위치 다섯 (앞→뒤 순서로) **0.2**
- ☐ 조음 방법 다섯 **0.2**
- ☐ 소리의 세기 셋 **0.2**
- ☐ **ㄲ은 음운 몇 개인가** **0.2**
- ☐ 단모음 표의 세 축 **0.3**
- ☐ **반모음이 '반쪽'인 이유** **0.3**

0.4 음운 변동 총론

CHAPTER 04 / 10 기둥 세우기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구획을 나눕니다. 아직 벽은 안 세웁니다.

미뤄둠 여기서 1가지를 비워둡니다 09에서 채웁니다

강의 0.4

① 음운변동 OT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0단계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쓴 대로 읽지 않는가.**

쓴 대로 읽지 않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운 변동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 네 개의 이름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만 잡고 갑니다.
각각의 실제 규칙은 0.5부터 하나씩 나오고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름	무슨 일이	개수
교체	다른 소리로 바뀜	그대로
탈락	있던 소리가 사라짐	줄어듦
축약	두 소리가 하나로 합쳐짐	줄어듦
첨가	없던 소리가 생김	늘어남

헷갈릴 때는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첨가와 나머지는 갈려요.

탈락과 축약이 둘 다 줄어드는데, 차이는 이렇습니다.

탈락은 그냥 없어지는 것.
축약은 두 개가 합쳐져서 제3의 소리가 되는 것.

좋아[조아]에서 ㅎ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좋다[조타]에서 ㅎ은 ㄷ과 합쳐져 ㅌ이 됐죠.

그리고 넷 각각이 **자음에서도 일어나고 모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론상 여덟 칸이 나와요.

이 책은 자음 쪽을 0.5~0.8에서, 모음 쪽을 0.9에서 다룹니다.

★ '변동'과 '변천'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 **음운의 변동** — **일정한 시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공시적)
> **음운의 변천**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통시적)

이 책이 다루는 건 전부 '변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 **변동** — '국물'을 [궁물]로 발음함. **지금도 매번 일어남**
> **변천** — 텬디가 '천지'로 바뀜. **500년에 걸쳐 한 번 일어나고 끝남**

> 💡 **가르는 법 — 지금도 매번 일어나는가.**
> [궁물]은 오늘 말해도 내일 말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천지'는 **이미 바뀌어 굳었고 다시 바뀌지 않아요.**

변천은 5권 중세국어에서 다룹니다. 구개음화·두음법칙·아래아 소실이 전부 변천이에요. **같은 '구개음화'라는 이름이 두 권에 나오는데, 1권 것은 변동이고 5권 것은 변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① 발음의 경제성 (편의성) — 편하게 하려고
국물 → [궁물] · 금붙이 → [금부치]
ㄱ 다음에 ㅁ을 발음하려면 혀를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앞 소리를 뒷 소리랑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면 훨씬 편하죠.

동화가 여기 속합니다.

② 표현의 명료성 (명확성) — 분명하게 하려고
물기 → [물끼] · 바다 + 가 → 바닷가
이건 반대입니다.
굳이 소리를 세게 만들거나, 없던 걸 집어넣어요.

편해지려는 게 아니라 **경계를 도드라지게** 해서 뜻을 분명히 하려는 거고요.
된소리되기와 첨가가 여기 속합니다.

언어는 이 두 힘이 밀고 당기는 곳입니다.
게으르고 싶은 입과,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머리가 싸우는 거죠.

앞으로 나올 규칙을 만날 때마다 **이게 어느 쪽 힘인지** 생각해보세요.
규칙이 훨씬 덜 외워집니다.

표기에 반영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예
발음 ≠ 표기	좋아[조아] · 국밥[국빱] · 국물[궁물] · 신라[실라] · 굳이[구지] · 석류[성뉴]
발음 = 표기	솔+나무 → **소나무** · 아들+님 → **아드님** · 끄+어라 → **꺼라** · 쓰+어라 → **써라**

윗줄은 소리만 바뀌고 글자는 그대로입니다.
아랫줄은 **아예 글자까지 바뀌었어요.**

같은 음운 변동인데, 하나는 표기에 반영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묻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런 게 있다"만 알아두시고, 각각이 왜 그런지는 0.6과 0.9에서 보고요.

> **⏸ 여기서 이름만 알고 갑니다**
> 교체·탈락·축약·첨가의 **실제 규칙은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 자음 → **0.5 ~ 0.8** / 모음 → **0.9**
> 지금 필요한 건 네 개의 서랍을 만들어두는 것뿐이에요. 앞으로 배울 규칙을 이 서랍에 넣습니다.

확인문제 0.4

1. 음운 변동 네 가지를 쓰고, 각각 음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쓰세요.
2. 탈락과 축약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3. 국물[궁물]과 바닷가는 각각 어느 쪽 이유인가요?
4. '경제성'과 '명료성'이 서로 반대 방향인 이유는?
5. 다음을 '발음 ≠ 표기'와 '발음 = 표기'로 나누세요.
   좋아 · 소나무 · 국밥 · 써라 · 신라
6. 음운의 '변동'과 '변천'의 차이를 쓰고, 가르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STAGE 04 CLEAR

음운 변동 총론

다음	**05 · 자음 교체**
남은 것	**6 / 10**

0.5 자음 교체

★★★★★

벽을 세웁니다. 소리가 바뀌는 자리들입니다.

미뤄둠	여기서 2가지를 비워둡니다	07에서 채웁니다
회수	앞에서 비워둔 1가지를 여기서 채웁니다	

① ② ③

강의 0.5 — 영상 3개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② 자음동화
③ 밭이랑 vs 밭이랑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자음이 자음을 만나면 소리가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배울 다섯 가지는 전부 "바뀐다"는 점에서 같아요.

없어지지도, 합쳐지지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소리로 **갈아끼워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교체고요.

여기서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모든 교체의 출발점은 **받침이 일곱 개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받침이 먼저 정리되고, 그다음에야 나머지 변화가 일어나요.
순서만 지키면 전부 풀립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에서 실제로 소리 나는 자음은 일곱 개뿐입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가느다란 물방울

0.1에서 예고한 그 제약입니다. 끝소리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정해져 있으니, 다른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중 하나로 갈아끼워집니다.

평파열음화
부엌[부억] · 낫·낱·낮·낯·낳[낟] · 앞·옆[압·엽]

바뀌어 나온 소리를 보세요.
ㄱ · ㄷ · ㅂ 셋뿐입니다. 전부 **파열음의 예사소리**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평파열음화**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곧 결과인 셈이죠.

> 💡 **뒤에 모음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부엌[부억]인데 **부엌에**는 [부어케]예요. 받침이 뒤 칸으로 넘어가버려서 **끝소리 자리에 있지를 않거든요.**
> 이걸 **연음**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0.7**

비음화

> 비음 X + 비음 O = 비음 O + 비음 O
> (ㄱㄷㅂ + ㅇㄴㅁ = ㅇㄴㅁ + ㅇㄴㅁ)

① 뒤가 앞을 바꾸는 비음화 — ㄱ · ㄷ · ㅂ + ㅇ · ㄴ · ㅁ

국물[궁물] · 먹는[멍는] · 밥물[밤물] · 닫는[단는] · 앞만[암만]

0.2에서 코 막고 '엄마'를 해봤던 감각을 꺼내세요. ㄱ은 코로 안 나가는 소리인데, 뒤에 코로 나가는 ㅁ이 오니까 미리 코를 열어버린 겁니다. **게을러서 생긴 일**이에요. 0.4에서 말한 경제성입니다.

바뀌는 자리를 눈여겨보세요. ㄱ→ㅇ, ㄷ→ㄴ, ㅂ→ㅁ. **입 모양은 그대로 두고 코만 열었습니다.** 조음 위치는 안 바뀌고 조음 방법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짝이 정확히 하나씩 정해집니다.

원래	바뀐 소리	나는 자리
ㄱ	ㅇ	둘 다 여린입천장
ㄷ	ㄴ	둘 다 잇몸
ㅂ	ㅁ	둘 다 입술

그런데 비음화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인 것도 있어요.

② 앞이 뒤를 바꾸는 비음화 — ㅇ · ㅁ + ㄹ

종로[종노] · 침략[침냑] · 강릉[강능] · 담력[담녁] · 항로[항노]

이번엔 **뒤에 있는 ㄹ이 ㄴ으로 바뀝니다.**
앞의 ㅇ·ㅁ은 그대로예요.

비음 뒤에서 ㄹ을 발음하기가 어려우니, ㄹ도 비음으로 만들어버린 거고요.

③ 둘 다 바뀌는 비음화 — ㄱ · ㄷ · ㅂ + ㄹ

독립[동닙] · 협력[혐녁] · 백로[뱅노] · 섭리[섬니] · 급류[금뉴] · 십 리[심니]

두 번에 나눠서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계	독립	무슨 일이
원래	독립	
①	독**닙**	ㄹ이 ㄴ으로 (②번 비음화)
②	**동**닙	그 ㄴ 때문에 ㄱ이 ㅇ으로 (①번 비음화)

뒤가 먼저 바뀌고, 그 바뀐 소리가 앞을 바꿉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요. ㄱ 뒤의 ㄹ은 ㄱ을 비음으로 만들 힘이 없거든요.

> 📌 **셋을 따로 외우지 마세요.**
>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 옆에서 비음이 된다** —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바뀌느냐만 다를 뿐이에요.
> 이 셋에 **순행 · 역행 · 상호**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건 **1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유음화

> 유음 X + 유음 O = 유음 O + 유음 O
> (ㄴ + ㄹ = ㄹ + ㄹ)

ㄴ과 ㄹ이 만나면 둘 다 ㄹ이 됩니다. 어느 쪽이 앞이든 상관없어요.

순서	예
ㄴ + ㄹ	신라[실라] · 논리[놀리] · 권력[궐력] · 대관령[대괄령] · 진리[질리]
ㄹ + ㄴ	달나라[달라라] · 달님[달림] · 설날[설랄] · 칼날[칼랄] · 물난리[물랄리]

유음화는 **언제나 완전동화**입니다.
비음화는 ㄱ이 ㅇ으로 '비슷해지는' 정도인데, 유음화는 아예 **똑같은 소리**가 돼요.

★ 그런데 ㄴ + ㄹ이 [ㄴㄴ]이 되기도 합니다

> 공권력[공꿘**녁**] · 의견란[의견**난**] · 생산량[생산**냥**] · 이원론[이원**논**] · 입원료[이붠**뇨**]
> 임진란[임진**난**] · 상견례[상견**녜**] · 결단력[결딴**녁**] · 횡단로[횡단**노**] · 동원령[동원**녕**]

신라는 [실라]인데 공권력은 [공꿘녁]입니다. 같은 ㄴ + ㄹ인데 결과가 반대예요.

★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 앞말이 혼자 설 수 있는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갈립니다.

앞말이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면 → 비음화
그렇지 않으면 → 유음화

'ㄴ'과 'ㄹ'이 서로 다른 형태소에 속하면서, 앞 형태소가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면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단어	쪼개면	앞말이 혼자 쓰이나	결과
회전력	**회전** + -력	✓ "회전이 빠르다"	**비음화** [회전녁]
전력	전- + -력	× '전'만으로는 안 씀	**유음화** [절력]
공권력	**공권** + -력	✓ "공권이 미치다"	**비음화** [공꿘녁]
권력	권- + -력	×	**유음화** [궐력]
의견란	**의견** + -란	✓	**비음화** [의견난]
신라	신 + 라	× (한 덩어리)	**유음화** [실라]

'회전력'과 '전력'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같은 '-력'인데 앞에 붙은 말이 다릅니다. **'회전'은 혼자 쓰이고 '전'은 못 씁니다.**

> 💡 **이 기준 하나로 위 목록이 전부 설명됩니다.**
> 공권 · 의견 · 생산 · 이원 · 입원 · 임진 · 상견 · 결단 · 횡단 · 동원 — **전부 혼자 쓰이는 말**입니다.
> 반대로 신라 · 논리 · 권력 · 진리의 앞부분은 혼자 못 씁니다.

> 📌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세요.**
> 낯선 단어가 나오면 **앞부분만 떼어내 소리 내어 보세요.** 말이 되면 [ㄴㄴ], 안 되면 [ㄹㄹ]입니다.

구개음화

> 구개음 X (ㄷㅌ) + 'ㅣ' (형식 형태소) = 구개음 O (ㅈㅊ)

해돋이[해도지] · 굳이[구지] · 같이[가치]

ㄷ은 잇몸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입니다.
그리고 ' ㅣ '는 센입천장 근처에서 나는 모음이고요.

뒤에 올 자리로 앞 소리를 미리 옮겨놓은 것.
그게 구개음화입니다. 이것도 게으름이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뒤에 오는 ' ㅣ '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 **그 ' ㅣ '가 혼자서는 뜻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만 사는 것**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해돋이'의 '-이'는 혼자 떼어놓으면 아무 뜻도 없습니다.
'해돋'에 붙어야만 살아요. '같이'의 '-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얹혀사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뜻을 가지는 것이 **실질 형태소**고요.
'위', '앞', '아래' 같은 것들이죠.

형태소(形態**素**)에서 素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입니다. 원소(元素), 산소(酸素)의 그 素예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구분이 필요한지는요.
아래 두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보면 바로 압니다.

표기	뜻	발음
밭이랑	밭'과' (조사)	[바치랑]
밭이랑	밭의 두둑 (명사)	[반니랑]

글자가 똑같은데 소리가 다릅니다.
조사가 붙은 쪽만 구개음화가 일어났어요.

반대쪽 예를 하나씩 더 봅시다. 실질 형태소가 오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단어	뒤에 오는 것	발음	
홑이불	**이불** (실질)	[혼니불] ○ / [호치불] ×	구개음화 **안 됨**
밭알	**알** (실질)	[바달] ○ / [바찰] ×	구개음화 **안 됨**
굳이	-이 (형식)	[구지] ○	구개음화 **됨**

'홑이불'을 [호치불]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뒤의 '이불'이 혼자서도 뜻을 갖는 말이거든요.

💡 **이 기준, 접어두지 마세요.**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는 **0.7의 연음에서 그대로 다시 쓰입니다.** 규칙을 새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을 두 번 쓰는 것**이에요.

▮▮ 형식 형태소의 정식 이름은 0.7에서
지금은 "혼자서는 못 사는 것"으로만 알아두세요. 이것들에는 **조사 · 어미 · 접사**라는 정식 이름이 있는데, 그중 '어미'는 **0.7**에서 배웁니다. 이름을 먼저 주면 모르는 말로 아는 말을 설명하는 꼴이 돼요.

▮▮ '꽃이'는 왜 [꼬치]일까요?
ㅊ 소리가 났으니 구개음화 같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헷갈리기 딱 좋은 자리라 미리 말해둡니다. → **0.7**에서 확실히 갈라냅니다.

된소리되기 ①

안울림소리 + 안울림소리
(ㄱㄷㅂ + ㄱㄷㅂㅅㅈ = ㄱㄷㅂ + ㄲㄸㅃㅆㅉ)

국고[국꼬] · 격돌[격똘] · 국밥[국빱] · 곡성[곡썽] · 악질[악찔]
닫고[닫꼬] · 돋다[돋따] · 입구[입꾸] · 법도[법또] · 법복[법뽁]
밥상[밥쌍] · 밥줄[밥쭐] · 짖고[짇꼬] · 짖다[짇따] · 짙게[짇께]

▮▮ 여기는 일부러 비워둡니다
된소리되기는 한글 맞춤법에 **다섯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배운 건 1번 하나예요.
2~5번은 '**어간·어미**'를 모르면 조항의 문장 자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7**에서 어간·어미를 배우고, **0.8**에서 나머지 네 개를 채웁니다.
지금은 1번만 확실히 하세요.

★ 일어나는데 표준이 아닌 변동이 있습니다 ★★★★

여기서 한 번 크게 짚고 갑니다.

'감기'를 [강:기]로 발음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문법'을 [뭄뻡], '있고'를 [익꼬]로 하는 사람도요. **실제로 그렇게 소리 납니다.** 그런데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표준 발음법 제21항 —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기 / 강:기 · 있고읻꼬 / 익꼬 · 문법문뻡 / 뭄뻡

왜 이런 발음이 생길까요. 편해서입니다.

말	잘못된 발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감기	[강:기]	'ㅁ'이 뒤의 **여린입천장** 'ㄱ'을 닮아 **'ㅇ'**으로
문법	[뭄뻡]	'ㄴ'이 뒤의 **입술소리** 'ㅂ'을 닮아 **'ㅁ'**으로
있고	[익꼬]	'ㄷ'이 뒤의 **여린입천장** 'ㄱ'을 닮아 **'ㄱ'**으로

셋 다 뒷소리의 조음 위치를 앞소리가 따라간 겁니다. 혀를 옮기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하죠.

그런데 이건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음화·유음화는 인정하고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비음화와 유음화는 안 하면 발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소리 내 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감기'는 [감:기]로 충분히 발음됩니다.** 편해서 그렇게 할 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 💡 **"소리 나는 대로가 곧 표준"이 아닙니다.**
> 표준 발음법 제1항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했어요.
> **실제 발음이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익꼬]**, **[강:기]**, **[뭄뻡]**이 답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 **변동이 일어났느냐**와 **표준이냐**는 **다른 질문**이에요. 이 셋은 **변동은 일어났지만 표준이 아닙니다.**

★★★ 그럼 표준 발음은 무엇으로 정하나 — 세 원칙 ★★★★★

"그건 누가 정했느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답이 규정 첫 줄에 있습니다.

>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
>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 문장에 원칙이 셋 들어 있습니다.

원칙	무엇을 보나
실제성	**현대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기반으로 정함
전통성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의 관습**을 감안함
합리성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정함

셋이 서로 당깁니다. 그래서 규범이 어렵습니다

★ ① 실제성 —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앞에서 본 것들이 전부 여기 해당합니다.

> **금융** — [금늉]과 [그뭉] **둘 다 표준**입니다. 사람들이 둘 다 쓰니까요.
> **ㅚ · ㅟ** — **단모음으로도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게 열어 뒀습니다.
> **읽고[일꼬] · 밟다[밥따]** — 겹받침에서 어느 쪽이 떨어지는지가 들쭉날쭉한 것도 **현실 발음을 반영**한 결과예요.

규정이 현실을 이긴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 ② 전통성 — 오래 그래 왔으니까

여기가 현실과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 **ㅐ와 ㅔ** — 요즘은 구별해 발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모음의 장단** — 이것도 잘 안 지킵니다.

그런데 규정은 여전히 둘을 다르게 정하고, 장단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왜일까요. 오랜 기간 구별되어 왔고, 그 구별이 뜻을 갈라 왔기 때문입니다. **눈[눈]과 눈[눈:]**처럼요.

현실만 따르면 이미 사라졌을 것들을 전통성이 붙잡고 있습니다

★ ③ 합리성 — 국어의 규칙에 맞으니까

'맛있다'를 봅시다.

실제 발음 — [마싣따]가 흔합니다.
규칙대로라면 — '맛'의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야 하니 **[마딛따]**입니다.

그래서 규정은 [마딛따]를 표준으로 정하고, [마싣따]도 함께 허용했습니다.

원칙은 세우되 현실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닭이 · 여덟은 · 부엌에'도 같습니다.

현실 발음	표준 발음	왜
[다기]	**[달기]**	겹받침은 **뒤엣것만 연음**해야 규칙에 맞음
[여덜른]	**[여덜븐]**	같은 이유
[부어게]	**[부어케]**	받침 **ㅋ이 제 음가대로** 넘어가야 함

현실 발음이 아무리 흔해도, 국어의 음운 규칙에 어긋나면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셋을 한 줄로

실제성 —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전통성 — 오래 그래 **왔으니까**
합리성 — 규칙에 **맞으니까**

세 원칙이 서로 당기기 때문에, 어떤 것은 복수 표준이 되고(금융) 어떤 것은 현실을 물리치며(부엌에) 어떤 것은 현실이 이깁니다(요일 발음).

💡 **그래서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돼요?"에 답할 수 있습니다.**
[강:기]가 안 되는 이유 — 편해서 하는 것일 뿐 **안 해도 발음되니까**(합리성에 안 걸림) + 전통도 아님
[그뮹]이 되는 이유 — **실제로 많이 쓰니까**(실제성)
[마딛따]가 표준인 이유 — **규칙에 맞으니까**(합리성)
셋 중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물으면 대부분 설명됩니다.

⚠️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가 됩니다**
"다음 중 표준 발음법의 '전통성'을 고려한 사례는?" — **ㅐ/ㅔ 구별**, **장단 규정**이 답입니다.
"'합리성'을 고려한 사례는?" — **[마딛따]**, **[부어케]**가 답이고요.

★ 발음이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 볼거리

어느 학생회 발표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 "올해 우리 학교 축제는 볼거리가 많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볼거리]라고 발음했습니다. 듣던 학생들이 갸웃했어요.

발음	뜻
[볼꺼리] ✓	**구경거리** — 말하려던 것
[볼거리] ×	**유행성 이하선염 — 병 이름**

된소리 하나가 축제를 병으로 바꿨습니다

'볼거리'(구경거리)는 관형사형 '-ㄹ' 뒤라 된소리가 납니다. 0.8에서 배운 그 조항이에요. 그런데 **병 이름 '볼거리'는 된소리가 안 납니다.**

> 💡 **앞에서 본 것들과 층이 다릅니다.**
> [강:기]나 [익꼬]는 **틀렸지만 뜻은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말이 되어 버려요.**
> **정확한 발음이 왜 필요한지**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예가 없습니다.

> ⚠️ **같은 자리의 다른 예**
> **나는 빚이[비지] 없다** (빚 = 부채) ↔ **나는 빗이[비시] 없다** (빗 = 머리 빗)
> **논리[놀리]에 맞게** ↔ [논니]로 발음하면 **말하는 내용의 신뢰까지 흔들립니다.**

확인문제 0.5

1. 부엌[ ] · 낯[ ] · 옆[ ]

2. 국물[ ] · 먹는[ ] · 밥물[ ]

3. 종로[ ] · 침략[ ] · 강릉[ ]

4. 독립[ ] · 협력[ ] · 백로[ ]

5. '독립'이 [동닙]이 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 쓰세요.

6. 신라[ ] · 달나라[ ] · 설날[ ] · 권력[ ]

7. 공권력[ ] · 의견란[ ] — 신라[실라]와 결과가 다른 이유는?

8. 해돋이[ ] · 굳이[ ] · 같이[ ]

9. 밭이랑(=밭과)[ ] · 밭이랑(=밭의 두둑)[ ]

10. 국밥[ ] · 입구[ ] · 곡성[ ]

11. '잔디'는 왜 [잔지]가 되지 않을까요?

12. 부엌[ ]인데 부엌에[ ]입니다. 왜 다른가요?

13. '회전력[회전녁]'과 '전력[절력]'의 결과가 다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14. 다음의 발음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대세요. 결단력 · 상견례 · 동원령

14-1. **'절절하다'와 '허허실실'은 ㄹ 받침 뒤에 ㅈ·ㅅ이 오는데도 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15.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고, 바른 발음을 쓰세요.

감기[강:기] · 국민[궁민] · 문법[뭄뻡] · 신라[실라] · 있고[익꼬]

16. 15번에서 고른 것들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17. '국민'은 [궁민]이 표준인데 '감기'는 [강:기]가 표준이 아닙니다. 둘 다 뒷소리를 닮은 것인데 왜 대접이 다를까요?

18. 표준 발음법 제1항이 담고 있는 세 원칙을 쓰고, 각각이 무엇을 보는지 설명하세요.

19. 다음이 각각 어느 원칙을 고려한 것인지 쓰세요.

① '금융'을 [금늉]과 [그뮹] 둘 다 표준으로 인정 ② 'ㅐ'와 'ㅔ'를 여전히 구별해 규정 ③ '맛있다'의 표준 발음을 [마딛따]로 정함

20. '볼거리'를 [볼거리]로 발음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앞에서 본 [강:기]·[익꼬]와 무엇이 다른지도 쓰세요.

STAGE 05 CLEAR

자음 교체

다음	06 · 자음 축약 · 탈락 · 첨가
남은 것	5 / 10

맛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뤄둔 것을
이제 열 차례입니다

CHAPTER 06	자음 축약 · 탈락 · 첨가
CHAPTER 07	어간과 어미 — 열쇠를 만드는 자리
CHAPTER 08	된소리되기 완성 · 자음군 단순화 예외
CHAPTER 09	모음의 변동
CHAPTER 10	변동이 겹칠 때 · 첨가의 원리 · 동화의 분류

여기까지는 어느 교재에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다른 자료와 갈리는 곳은 지금부터입니다.

0.5에서 된소리되기 1번만 하고 넷을 미뤘습니다.
0.6에서 자음군 단순화도 원칙만 했습니다.
0.7에서 어간과 어미를 세운 다음, 0.8에서 넷을 한꺼번에 엽니다.

그리고 CHAPTER 10이 통째로 「변동이 겹칠 때」입니다.
'맏형'에 변동이 몇 개인지, '꽃잎'은 몇 개인지 — 시험이 노리는 자리입니다.

전체 124쪽 · 정답과 해설 · 강의 영상 QR 18개